

남자 대학생들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Lower Body Shape of Male College Students

이 영 주

경성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

Lee, Young Ju

Division of Living Science, Kyung-Sung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the lower body shapes of mal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78 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girth items in lower part of the body scored average. Subjects tended to be dissatisfied with their height.
2.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waist girth and weight was influenced by the real body size than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abdomen girth, hip girth, ankle girth, leg length, height, crotch length were affected by the degree of recognition than the real body size.
3. Subjects were more satisfied with standard lower body type than with lean and obese ones.

Key words : the degree of recognition, the degree of satisfactions, lower body shape, real body size

I. 서 론

사람의 외모나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복은 그 시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역, 시대,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의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기 위

해서는 주 고객층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의 형태를 파악하여 이상적인 체형에 가깝게 보일 수 있도록 신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Donty와 Brannon(1984), Lennon(1988), 이영주(1997, 2000)등은 여성의 경우 여원 체형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고, Davis(1985)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 차이가 많을수록 커진

Corresponding author : Lee, Young Ju
Tel : (051)620-4667, Fax : (051)623-5248
E-mail : Young99@star.kyungsung.ac.kr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다고 하였다.

최근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 및 남성의 역할이 변화되어 남성의 외모나 의복, 체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김영인, 1992)되었으며 특히 다른 연령층의 남자 집단에 비해 자신의 개성 표현이 자유로운 남자대학생들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체형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들은 여자에 집중되어있고, 심리학적 측면과 의복 행동을 위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고애란·김양진, 1996; 황진숙, 1998; 김창현, 1999; 김정숙, 1984; 박우미, 1993, 1999) 패턴설계를 위해 남자체형에 대한 실제 계측치를 통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정재은·이순원(1998)의 연구 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며, 하반신을 분리하여 계측하고 체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형태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하반신 계측을 통한 유형별 인식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자대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하반신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이루어진 여자대학생들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와의 비교를 통해 하반신형태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식도, 만족도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반신 형태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남자대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하반신형태를 연구해봄으로써 남자대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하반신 형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슬랙스 원형제작과 디자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남자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7월 4일-8월 31일에 설문과 계측을 실시하여 178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1) 인식도와 만족도

하반신 부위 중 예비조사를 통해 남자대학생들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느 부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위인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 발목둘레, 다리 길이, 밀위길이, 키, 몸무게의 10항목을 선택하여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2) 하반신계측

성인 남성의 하반신 체형 파악과 슬랙스제작에 필요한 항목으로 높이 8항목, 너비 7항목, 두께 7항목, 둘레 7항목, 길이 4항목, 키, 몸무게로 총 35항목을 Martin인체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3) 이상치수

피험자들에게 계측치수를 알려준 뒤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치수를 적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1)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는 5점척도법을 사용하여 인식도는 매우 가늘다, 매우 짧다, 매우 작다, 매우 가볍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굵다, 매우 무겁다, 매우 길다, 매우 크다를 5점으로 하였다.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의 순으로 5점에서 1점을 주어 조사하였다.

<표 1>은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한 결과와 이영주 외2인(1997)의 20대 여대생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남녀 대학생들의 하반신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남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표 1>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부위	남자대학생(본 연구, 2001, n=178)				T-value	여자대학생 (이영주외 2인, 1997, n=202)	
	인식도		만족도			인식도	만족도
	M	S·D	M	S·D			
허리둘레	2.99	1.70	2.90	0.97	0.59	3.42	2.21
배둘레	3.03	0.95	2.77	1.05	2.00*	3.66	1.99
엉덩이둘레	3.12	0.92	2.97	1.07	1.28	3.70	1.94
대퇴둘레	3.13	1.03	2.84	1.05	2.66**	3.78	1.71
장딴지둘레	3.08	1.00	2.92	1.03	1.56	3.71	1.99
발목둘레	2.67	0.89	3.10	0.94	-4.76***	3.18	2.55
다리길이	2.84	0.79	2.75	1.14	1.45	3.27	2.47
밀위길이	2.97	0.50	3.11	0.85	-2.33*	2.76	2.18
키	2.79	0.98	2.54	1.25	3.64***	3.38	2.11
몸무게	2.89	0.98	2.71	1.09	1.79	2.76	2.02

* P<0.05, ** P<0.01, *** P<0.001

하반신 부위 중 둘레에 대한 인식도는 발목둘레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통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퇴둘레를 가장 굵게, 발목둘레를 가장 가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길이와 키는 보통 보다 조금 짧고 조금 작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키가 가장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부위는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거나 약간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결과는 이영주 외 2인(1999)의 20대 여대생들이 자신의 하반신 부위 중 둘레부위에 대해 대체로 굵게 인식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대생들이 가장 불만인 부위가 대퇴부위인 반면, 남자대학생들은 보통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배둘레가 가장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장딴지둘레에 비해 배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며 다른 부위에 비해 복부가 굵어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자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하반신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여대생들에 비해 하반신 부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성복이 가늘어 보이는 실루엣을 추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남성복은 키를 크게 보이게 하는 길이적인 보완과 복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이나 패턴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계측치간의 상관관계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 부위의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실제 계측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허리둘레에 대한 인식에 비해 계측치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실제 허리둘레 치수가 가늘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리둘레의 만족도에는 인식도 보다는 실제계측치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계측치와 인식도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인식도가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둘레, 다리길이, 밀위길이는 키는 인식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어 발목둘레는 굵게 인식할수록, 다리길이, 밀위길이는 길수록, 키는 클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계측치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어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너무 야윈 형태보다는 몸무게가 좀 나가는 남성다운 체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영주외 2인(1997), 이영주(2000)의 무조건 야윈 체형을 원하는 20대 여대생과 여고생들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계측치수간의 상관관계

부 위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계측치	
	상관계수		상관계수	
허리둘레	-.128		-.296***	
배둘레	-.478***		-.432***	
엉덩이둘레	-.267***		-.260***	
대퇴둘레	.009		-.075	
장딴지둘레	.056		-.054	
발목둘레	.166*		.015	
다리길이	.689***		.436***	
밀위길이	.316***		-.032	
키	.680***		-.032	
몸무게	.113		.629***	

* P<0.05, ** P<0.01, *** P<0.001

이와 같이 허리둘레와 몸무게의 만족도는 인식도 보다는 계측치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부위에 비해 허리둘레와 몸무게는 의복 구입시나 목욕탕 등에서 쉽게 자주 측정할 수 있어 자신의 정확한 계측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와 몸무게의 만족여부는 구체적인 수치적 개념이 아닌 자신의 인지에 의한 인식도 보다는 실제의 계측치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밀위길이나 발목둘레는 남학생들의 경우 몸무게나 허리둘레처럼 계측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구체적인 치수에 대한 인지력이 작아 자신의 밀위길이나 발목둘레에 대한 심리적인 인식의 정도가 만족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실제치수와 이상치수

남자대학생들의 키,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실제 계측치수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치수간의 차이와 정재은·남윤자(1999)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와의 차이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키와 체중에서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대학생들

〈표 3〉 실제치수와 이상치수와의 차이검정

단위 : cm, kg

부위	남자대학생(본 연구, 2001)				T-value	여자대학생(정재은 외 1인, 1999)				T-value
	실제치수		이상치수			실제치수		이상치수		
	M	S·D	M	S·D		M	S·D	M	S·D	
키	172.38	5.54	179.02	3.83	-19.66***	159.93	4.79	166.46	2.93	-33.19***
체중	66.78	9.74	70.69	5.89	- 6.32***	51.89	5.62	49.16	3.09	12.57***
허리둘레	76.28	6.21	76.57	4.77	- 0.65	65.36	4.54	63.12	2.83	10.52***
엉덩이둘레	93.41	5.86	92.09	8.31	1.88	90.75	3.85	86.87	4.28	14.29***

*** P<0.001

은 키는 6.64cm 더 크기를 원했고 체중은 3.91kg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상치수와 실제치수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재은·남윤자(1999)의 20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여대생들은 키와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모두에서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키는 6.53cm 더 크기를 위해 남자대학생들과 거의 비슷하게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여자대학생들은 몸무게가 2.73kg 작게 나가기를 위해 남자대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허리둘레는 2.23cm, 엉덩이둘레는 3.88cm가 실제치수 보다 작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들에 비해 이상치수와 실제치수간에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3. 체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남자대학생들을 신체충실지수(Röhrer 지수)에 의해 1.20 이하를 야원형, 1.21-1.50은 보통형, 1.51 이상을 비만형으로 분류한 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는 야원형은 26.4%, 보통형은 64.9%, 비만형은 9.0%의 분포를 보여 남자대학생들은 보통체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체형에 따른 하반신 부위의 계측치수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높이 항목에서는 살높이에서 $P < 0.05$ 수준에서 체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만형이 살높이가 가장 낮았다. 너비, 두께, 둘레의 모든 항목에서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발목너비와 무릎두께, 발목두께를 제외하고는 비만형이 가장 짧고 야원형이 가장 가늘게 나타났다. 길이항목에서는 밀위앞뒤길리와 엉덩이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만형이 가장 길고 보통형, 야원형의 순으로 길었다. 이것은 높이항목에서는 비만형에 해당하는 집단이 대체적으로 키가 작은 피험자로 구성되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길이항목에서는 복부와 허리, 엉덩이 부위의 지방침착에 영향을 받아 밀위앞뒤길리와 엉덩이길이가 비만형이 가장 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만형의 슬랙스 제작 시 밀위길이는 허리와

복부부위가 충분히 커버 될 수 있게 계측이 되어야 하므로 의자에 앉아서 계측되어지는 밀위길이가 보다 실제의 밀위앞뒤길이를 계측하여 비만형의 밀위앞뒤길이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와 몸무게도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키는 비만형이 가장 작고 야원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하반신 부위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인식도에서는 다리길이, 키, 밀위길이를 제외하고는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체형은 가장 짧게, 야원형은 가장 가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원형은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을 더 짧게 인식한 반면 비만형은 하반신에 비해 상반신을 더 짧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형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인식도와는 달리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다리길이, 몸무게에서만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허리둘레와 몸무게는 야원형 보다는 보통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반신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야원형이나 비만형에 비해 보통형에 속하는 체형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대학생들은 너무 야원형이나 비만형보다는 보통 체형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이영주(1997, 2000)의 20대 여성과 여고생의 경우 야원형이 보통형과 비만형 보다 하반신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체형에 따른 계측치와 이상치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계측치는 체형에 따라 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상치는 몸무게와 허리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키는 모든 유형에서 이상치가 계측치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계측치가 가장 작은 비만형이 7.73cm 더 크기를 위해 계측치와 이상치간의 차이가 가장 컸다.

몸무게는 야원형과 보통형은 각각 11.17kg, 2.35kg 더 나가기를 원했고 비만형은 6.12kg 작게 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원형이 계측치와 이상치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는 야원형은 4.49cm 더 짧기를, 보통형과 비만

〈표 4〉 체형에 따른 하반신 계측치수

단위 : cm, kg

계측부위		체형	야원형(n=47)		보통형(n=115)		비만형(n=16)		F-value
			M	S · D	M	S · D	M	S · D	
높이 항목	허리높이	106.35	3.34	106.97	4.90	105.89	4.32	0.62	
	배높이	101.97	4.41	100.99	5.20	100.58	4.50	0.80	
	엉덩이높이	85.77	3.21	85.46	3.80	83.90	3.96	1.59	
	대퇴높이	69.08	4.01	68.88	4.16	67.64	3.42	0.78	
	살높이	a 77.39	2.61	a 78.61	3.65	c 76.71	3.91	3.91*	
	무릎높이	45.76	1.82	45.98	2.82	45.62	2.25	0.22	
	장딴지높이	33.57	2.22	33.64	2.06	33.39	2.07	0.10	
	발갈복사점높이	6.07	0.43	7.44	6.10	6.68	0.53	0.47	
너비 항목	허리너비	c 24.70	1.45	b 26.49	1.60	a 29.66	2.60	54.29***	
	배너비	c 25.93	1.81	b 27.92	2.03	a 31.54	3.47	42.69***	
	엉덩이너비	c 31.29	1.17	b 32.69	1.72	a 34.09	2.12	21.17***	
	대퇴너비	c 15.27	1.02	b 16.62	1.22	a 18.31	1.49	43.06***	
	무릎너비	c 9.97	0.82	b 10.73	0.86	a 11.30	1.23	17.99***	
	장딴지너비	c 10.21	0.77	b 11.08	0.88	a 11.58	0.99	22.10***	
두께 항목	발목너비	b 4.97	0.73	a 5.28	0.55	a 5.29	0.74	4.29*	
	허리두께	c 17.81	1.32	b 19.47	1.57	a 22.70	2.23	59.19***	
	배두께	c 17.66	1.17	b 19.34	1.58	a 22.45	2.26	58.22***	
	엉덩이두께	c 20.22	1.36	b 22.21	1.96	a 24.51	1.82	38.56***	
	대퇴두께	c 15.41	1.26	b 17.37	1.60	a 19.96	1.85	57.66***	
	무릎두께	b 11.23	0.74	a 11.82	1.06	a 11.96	1.06	6.78**	
둘레 항목	장딴지두께	c 10.46	0.80	b 11.28	0.92	a 11.79	1.16	18.25***	
	발목두께	b 6.86	0.75	a 7.41	0.72	a 7.49	1.07	9.50***	
	허리둘레	c 71.23	3.50	b 76.66	4.35	a 88.33	6.14	94.26***	
	배둘레	c 72.94	3.62	b 78.97	5.38	a 91.29	7.52	75.40***	
	엉덩이둘레	c 89.27	3.43	b 94.18	4.45	a 100.01	10.70	30.39***	
	대퇴둘레	c 50.59	3.14	b 54.84	3.69	a 61.37	4.02	57.72***	
길이 항목	무릎둘레	c 35.48	2.13	b 37.40	2.28	a 39.45	1.76	23.02***	
	장딴지둘레	c 35.37	1.58	b 37.88	2.23	a 40.38	2.62	40.36***	
	발목둘레	c 21.06	1.73	b 22.46	1.35	a 23.49	1.34	22.38***	
	밀위길이	26.91	1.90	28.31	4.90	27.93	3.04	1.89	
	밀위앞뒤길이	b 75.96	4.02	a 79.73	7.35	a 83.25	13.83	7.03**	
기타	엉덩이길이	b 22.67	2.06	b 23.47	2.12	a 24.29	1.69	4.37*	
	바지길이	101.69	3.50	102.07	4.71	100.88	4.42	0.57	
	키	a 173.18	4.31	a 172.49	5.91	b 169.21	5.23	3.20*	
	몸무게	c 59.13	4.39	b 67.95	8.32	a 80.78	10.85	49.22***	

* P<0.05, ** P<0.01, ***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 파벳으로 나타내었다. a>b>c

형은 각각 0.12cm, 9.02cm 가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엉덩이둘레는 야원형은 1.12cm 더 굵기를, 보통형과 비만형은 1.61cm, 4.24cm 가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영주(2000)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야원형, 보통형, 비만형

모두에서 이상치수는 계측치 보다 더 가늘기를 원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대학생들은 지나치게 마른 것만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무조건 가늘게 보이기를 원하는 여자들과는 다른 디자인과 패턴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체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체형		아원형(n=47)		보통형(n=115)		비만형(n=16)		F-value
		M	S·D	M	S·D	M	S·D	
인식 도	허리둘레	b 2.47	3.00	b 3.03	0.67	a 4.25	0.68	7.12**
	배둘레	c 2.15	0.81	b 3.22	0.72	a 4.25	0.68	58.32***
	엉덩이둘레	c 2.36	0.82	b 3.28	0.74	a 4.19	0.66	41.96***
	대퇴둘레	c 2.28	0.80	b 3.32	0.89	a 4.31	0.70	41.60***
	장딴지둘레	c 2.26	0.74	b 3.28	0.88	a 4.06	0.85	36.36***
	발목둘레	c 2.15	0.78	b 2.78	0.82	a 3.44	0.89	17.61***
	다리길이	3.06	0.73	2.76	0.81	2.75	0.68	2.68
	밀위길이	2.83	0.52	3.01	0.47	3.06	0.57	2.53
	키	2.79	0.75	2.81	1.07	2.69	0.95	0.11
	몸무게	c 1.85	0.62	b 3.13	0.73	a 4.25	0.58	90.59***
만족 도	전신	c 1.62	0.64	b 2.82	0.70	a 4.38	0.72	107.71***
	상반신	c 1.87	0.80	b 3.02	0.79	a 4.56	0.81	79.12***
	하반신	c 1.94	0.76	b 3.06	0.83	a 4.31	0.70	60.85***
	허리둘레	a 2.77	0.79	a 3.09	0.99	b 1.94	0.68	11.76***
	배둘레	a 3.04	0.86	a 2.81	1.08	b 1.69	0.60	11.33***
	엉덩이둘레	a 3.09	0.90	a 3.05	1.10	b 2.00	0.82	7.77***
	대퇴둘레	2.72	1.06	2.95	1.02	b 2.44	1.15	2.10
	장딴지둘레	2.77	1.09	3.02	0.99	2.63	1.09	1.71
	발목둘레	2.83	0.99	3.22	0.92	3.00	0.82	3.01
	다리길이	a 3.06	1.22	b 2.69	1.12	b 2.25	0.77	3.60*
밀위길이	3.23	0.94	3.10	0.82	2.88	0.81	1.13	
키	2.72	1.08	2.48	1.31	2.44	1.41	0.70	
몸무게	b 2.23	0.89	a 2.99	1.07	b 2.06	1.06	12.56***	

* P<0.05, ** P<0.01, ***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a>b>c

〈표 6〉 체형에 따른 계측치와 이상치

단위 : cm, kg

체형	아원형		보통형		비만형		F-value	
	계측치	이상치	계측치	이상치	계측치	이상치	계측치	이상치
키	a173.18	179.33	a172.49	179.18	b169.21	176.94	3.20*	2.66
몸무게	c 59.13	b 70.30	b 67.95	b 70.30	a 80.78	a 74.66	49.22***	4.13*
허리둘레	c 71.23	b 75.72	b 76.66	b 76.54	a 88.33	a 79.31	94.26***	3.51*
엉덩이둘레	c 89.27	90.41	a 94.18	92.57	b 91.29	95.53	30.39***	1.40

* P<0.05, ** P<0.01, ***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a>b>c

IV. 결론 및 제언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자대학생들은 둘째항목에 대한 인식도는 보통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나 다리길이와 키를 조금 짧고 작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는 키를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둘째항목은 보통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다.
2. 남자대학생들의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는 허리둘레와 몸무게는 자신의 실제계측치수에 더 영향을 받으며, 배둘레, 엉덩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밀위길이, 키의 만족도는 실제 계측치수 보다 자신의 인식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자대학생들은 키는 좀 더 크기를 원하고 몸무게는 더 나가기를 원했으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이상치수와 실제 계측치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남자대학생들이 원하는 하반신형태는 지나치게 마르거나 비만한 형태보다는 보통에 가까운 형태였다.

본 논문의 피험자는 부산지역의 남자대학생들로 구성되어있어 다른 지역이나 연령층으로의 확대해석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인식도, 만족도, 하반신, 계측치수, 이상치수

참 고 문 헌

고애란 · 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김영인(1992). 패션이미지에 의한 남자대학생 의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3), 299-314.

김정숙(1984).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창현(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인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윤자 · 이승희(2001). 한 · 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박우미(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25-36.

박재경 · 남윤자(1999).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이영주 · 박옥련 · 이정옥(1997).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68-382.

이영주(2000). 여고생의 하반신 형태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9(2), 205-213.

정옥임(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53-162.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재은 · 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정재은 · 이순원(1998). 20대 남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이상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7(2), 49-63.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Clayton, R.,Lennon, S.J.Larkin, J.(1987). Perceived Fashionability of Garment As Inferred from The Age and Body Type of The

- Wear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37-246.
- Davis, L.L.(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 cathexis, and attitude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 61(3), 1199-1205.
- Douty, H. I. & Brannon, E. L.(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3(2), 122-137.
- Lennon(1988). S.J.,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6(3), 196-203.
- 大失愛美・中川苗(1989). 女子學生の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係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11), 574-581.

(2001. 11. 21 접수)